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초대원장 張文鎬 박사

대담 / 李光榮 본지 편집위원

장소 : 원장실

일자 : 3월 11일 오전 10시30분

“과학기술정책 추진에 구심체 역할”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은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구심체 역할을 하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과학기술평가원 초대원장으로 취임한 장문호박사의 다짐이다. 장원장은 본지와의 대담에서 “앞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적인 조명능력을 보유한 평가전문가를 육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바쁘신 가운데 「과학과 기술」지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선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 : 이하 「평가원」) 초대원장에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취임소감부터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과학기술계의 정론지로 그 위상을 굳건하게 지켜온 「과학과 기술」지에서 저에게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과학기술정책 추진에 있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에 어긋나지 않고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기관이라는 이점을 최대한 살리고 합리적인 선진 평가문화 등 과학문화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하여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과학기술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새롭게 밑그림을

그려 나가고자 합니다. 과학기술계 여러분의 많은 채찍과 성원을 바랍니다.

■ 「평가원」은 어떤 취지에서 발족되었는지요. 그리고 기존의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미래지향한 대안 제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은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엔진역할을 하는 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 산하의 출연기관으로 발족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과학기술정책이 주로 연구개발투자의 확대에 바탕을 둔 정책이었다면, 향후의 과학기술정책은 질적인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능률과 효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질에 바탕을 둔 과학기술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함께 연구개발전략 수립을 위한 과학기술평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그리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는 새롭게 출범하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의 과학기술정책연구원으로 탈바꿈하여 미래지향적이고 보다 장기적인 과학기술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연구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하는 한국과학기술평가원과 먼 미래를 지향한 과학기술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상호 보완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갈 계획입니다.

■ 「평가원」이 하게 될 주요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평가관리에 전문성 제고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담당하게 될 사업은 크게 네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과학기술부가 관장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특정연구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등)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평가관리 업무입니다. 지금까지 수행해온 기능입니다만 더욱 발전시켜 연구기획 및 평가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둘째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조정

과 관련하여 관련 평가자료를 제공하는 업무라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국가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종합조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올해에 발족합니다. 따라서 국가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종합조정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각종 기초조사자료 및 분석·평가자료가 전문기구에 의해서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분석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셋째는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입니다만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을 조사하여 국가과학기술통계를 유지 관리하는 과학기술 통계·지표조사 분석사업과 중·장기 기술예측업무를 수행합니다.

넷째는 국가간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하는 거점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국가간 과학기술협력은 국가간 외교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선진국에 비하여 연구개발특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가에서는 선진국의 연구개발 특성을 유입 활용하기 위한 과학기술



▲ 張文鎬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초대원장(왼쪽)이 본지 李光榮 편집위원에게 취임소감을 이야기하고 있다.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과학기술협력업무는 러시아·중국 등 북방과학기술협력, APEC국가간 과학기술협력, 한-미과학기술협력 포럼, 한-일 과학기술협력 포럼 등의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사업은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라 봅니다. 현 「평가원」의 인적 자원으로 가능하다고 보는지요?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조사·분석·평가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정책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조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 확보가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광범위하고 충분한 기초자료와 정책자료가 마련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평가원 내에 연구사업조사평가단을 설치하였고, 그 구성원들은 다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 및 평가와 관련한 연구 및 실무에 참여한 인력으로 전문성이 축적되어 있으며, 전문위원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기술적 전문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성을 더욱 보강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조사·분석·평가업무가 평가원의 몇몇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여하는 과학기술자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계를 포함한 여러 전문가그룹의 평가의견에 바탕을 두고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명능력을 보유한 평가 전문가를 육성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사업은 무엇보다 공정성이 생명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 어떤 조치를 생각하고 있는지요?

말씀하신 대로 공정성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평가결과에 아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위해 각 부처별로 평가위원을 추천받아 전적으로 위촉된 평가위원의 주도하에 평가가 수행되고 있으며, 각 부처 산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의 전문가들이 평가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성적 평가 뿐만 아니라 정량적 평가지표를 통한 평가의 객관화를 지향하고 있고, 분석 및 평가를 통해 나온 결과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통계들을 공개 가능한 한도까지 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의 결과는 어떤 방법으로 정책에 반영되는지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결과를 반영한 종합조정계획을 수립하여 관계부처 심의를 거친 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평가결과는 예산청과 협의를 거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됨으로써 R&D 자원배분의 합리적 조정과 효율성을 제고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각 부처별로 소관사업에 조정결과를 반영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중·장기 기술예측 및 단기 기술 수요조사사업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추진되는지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 방법으로 정책에 반영하게 되는지요?

2만5천명 대상 설문조사

중·장기 기술예측은 과학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매 5년마다 실시하기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94년도 제1회 중장기 기술예측에 이어 현재 제2회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1단계에서 산·학·연 전문가 2만5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본 조사에의 참여여부, 예측기술후보 과제 및 전문가의 인적사항을 조사하고, 2단계인 본 예측조사에서는 기술 분야별로 예측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측대상기술, 조사항목 등을 확정하여 델파이(Delphi)기법으로 조사합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분야별 조사결과 분석과 활용방안 연구, 비교분석 등의 후속연구를 수행합니다.

단기 기술수요 조사사업은 가까운 미래의 기술수요를 조사함으로써 정부의 기술개발계획 수립 및 기술개발 동향·기술수준·시급성·중요성·파급효과·시장성 등을 평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업무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2~3년에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으로는 산·학·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Bottom-Up) 방식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하여 과학기술 정책 수립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민간부문의 기술개발전략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들이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한국의 미래기술(1995~2015년)'을 발간하였고, '2010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에 활용된 바 있습니다.

■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러 봅니까?

둘이켜 보면 우리나라처럼 과학기술발전을 급속히 이룬 국가도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의 총량은 미국·일본·독일 등 과학기술 선진국들에 비하여 보잘것 없는 규모입니다.

한 나라에 축적된 총지식은 과거부터 축적한 연구개발스톡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투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몸집의 국가가 선진국과 같은 규모의 연구개발투자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에 입각한 전략적 투자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①